

전 세계는 녹색 혁명 중 환경기술개발 · 산업육성이 곧 경쟁력이다



지난 12월 방송된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생태계의 변화와 위협을 심도 깊게 다루어 호평을 얻었다.

다큐멘터리는 빙하가 줄면서 사냥터를 잃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극곰 가족이나 작은 유빙 위에 서로 앉으려고 싸우는 바다코끼리, 기후가 바뀌어 사냥 대신 농사로 살아가는 툰드라 지대 주민들을 통해 환경 위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경고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러한 환경 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거나 북극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구 평균 기온이 2℃만 상승해도 15~40%의 동식물이 멸종한다. 3~4℃가 상승하면 아열대 · 열대 지역 주민들의 대이동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6℃가 상승하면 메탄하이드레이트의 대량 분출로 폭풍이 일어나고 지구상에서 인류를 포함한 전 생물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오늘날 환경이 전 지구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결과다. 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김 상 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원장
☎ 02-380-0503, sangilk@kiest.re.kr

<필자약력>

-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 환경부 폐기물관리국, 국제협력관, 한강유역환경청장, 자연보전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위기는 곧 기회, 새로운 녹색 시장을 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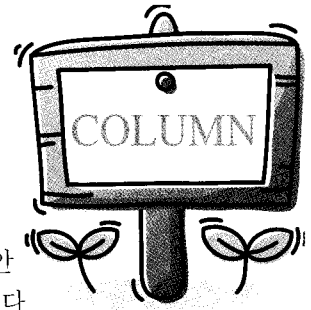
이유는 또 있다. 환경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거대 시장(green ocean)의 등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규모가 2008년엔 930억 달러, 2010년에는 1500억 달러에 달하며, 녹색기술 시장은 2020년이면 3천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하느냐 보다 '얼마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기술력과 그에 기반 한 생산 능력이 곧 경쟁력이다. 경제 활동에 있어 에너지 소비는 줄이되 온실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은 최소화하는 친환경기술이 관건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녹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주(green race)가 뜨겁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국인 독일은 생태적 산업정책(Ecological Industrial Policy)을 통해 녹색기술 개발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2006년 중국과 미국 등을 제치고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독일은 2007년 한 해 동안 이산화탄소 1억1500만 톤을 감축하고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의 녹색산업은 전통적 우량산업인 기계나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높은 8%의 실질성장률을 보였다(2005년 전체 경제의 4%, 2030년 16% 전망).

영국도 2020년까지 친환경기술에 20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최된 'Low Carbon Economy Summit'에서 고든 브라운 총리는 "2050년 3조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천5백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는 환경시장을 선점하고 영국 기업의 점유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세계에서는 첫 번째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기후변화법안(Climax Change Bill)을 통해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틀을 마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또 어떠한가? 역시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2007년 5월 국가장기전략 지침인 '이노베이션25'를 통해 환경을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80%를 감축하고, 중간 목표로 2020년까지 14%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녹색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환경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점이 흥미롭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 향후 5년간 개도국 대상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재정지원 프로그램(Cool Earth Partnership)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기후변동대책 차관을 신설해 개도국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산림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0.4~0.5%의 저리로 빌려주겠다고 나섰다.

녹색성장의 태양과 비가 되어야

그야말로 전 세계가 녹색 시장을 향해 뜨겁게 혁명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녹색 경주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다각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폐기물자원화 사업에 올해(32억 원)의 10배에 가까운 344억 원을 투입하고 환경 관련 업체 지원을 위해 환경산업육성 용자와 환경융합 신기술개발사업에 각각 100억,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의 주무 부처라 할 수 있는 환경부도 부내에 환경산업과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기술진흥원도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통합하여 그 기능을 확대 개편한다.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지난 8.15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기도 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부족한 점이 많다. 녹색 선진국들이 준비운동 마치고 막 달리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제 갓 신발끈을 맨 셈이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과 기술 개발을 통해 녹색혁명을 진행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한 단계는 아니다. 특히 성장의 녹색화 정책은 다양한 반면 녹색을 통한 성장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는 이러한 선도국들의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장점은 벤치마킹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의 강점으로 키우면 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친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녹색성장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이 씨앗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태양과 비의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해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하고, 알맞은 햇살과 비를 뿌려 녹색성장이라는 씨앗이 곧은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